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특성분석

Preparation Characterizations for old Age of the Baby Boomers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Yong-Jae Lee(123peter@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 특성을 다층구조의 틀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베이비붐세대의 공적연금가입율 59%, 개인연금가입율 11.5%, 퇴직연금가입율 1.5%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교육수준이 낮고, 여성 베이비부머일수록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노후빈곤 가능성이 컸다. 셋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의료비 지출이 염려되는 베이비부머가 노후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이 노후에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을 가능성이 컸다. 넷째, 경제수준이 낮은 베이비부머일수록 노후준비를 잘하지 못해서 빈곤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불완전 근로와 조기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노후준비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교육과 경제수준이 낮은 계층, 여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베이비부머를 위한 공적연금 가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보편적인 노령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중심어 : | 베이비붐세대 | 노후준비 | 공적연금 | 개인연금 | 퇴직연금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reparation characteristics for old age of the baby boomers by the framework of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ulti-pillar pension system's subscription rates of baby boomers was public pension 59%, private pension 11.5% and retirement pension 1.5%. The baby boomers isn't ready for old age life. Second, women and people with the low level of education are less prepared for old age. Third, people in a bad health state are less prepared for old age. Forth, low-income people are less prepared for old age. We must support baby boomers' preparations for old age by establishing income security system for old age. We must establish public pension support policy for the people of the low level of education and economic hierarchy, women, bad health status people, and must introduce universal old-age allowance policy for guaranteeing the minimum income of baby boomers.

■ keyword : | Baby Boomer | Preparation for old Age | Public Pension | Private Pension | Retirement Pension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속한 인구고

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를 넘어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으며, 2010년 11.0%, 2018년에는

접수번호 : #130219-008

접수일자 : 2013년 02월 19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3월 20일

교신저자 : 이용재, e-mail : 123peter@hanmail.net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 2026년에는 20%인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적극적인 노후준비를 통해 노인 빈곤예방을 도모할 뿐 아니라 빈곤노인에 대한 국가부담도 경감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63년에 출생한 세대로서 기업 정년퇴직 연령인 만55세에 도달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했다. 이들의 은퇴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은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회의 우려 속에 거론되는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 미흡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정년은 55세인데 소위 ‘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평균 53세에 대부분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떠난다[1]. 베이비붐세대는 사회안전망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을 맞으며, 불안정한 근로생애를 살아오면서 노후준비도 대부분 미흡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노후준비를 위한 대표적 공적수단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의 가입을 통한 보완적인 노후준비를 통해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정책이 필요하다. 10년 이내에 노인인구로 편입되는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들의 은퇴와 퇴직에 대비한 노후준비 정책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미래노인 인구에 편입될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합리적 노후소득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이비붐세대를 중심으로 이전세대와 이후세대의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준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노후준비 구조와 선행연구

노후준비는 “노후에 필요한 자원들을 마련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과 계획”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 노후준비 핵심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후소득을 충실히 보장하면서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층체계의 노후소득보장이 요구된다. 협의의 의미에서 다층체계(mult-pillar system)는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연금개혁 유형의 하나 혹은 모델로서 논의된다. 다층체계의 전형적인 모델은 World Bank가 제시한 형태로 1994년 ‘노령화 위기로부터의 탈출(The Averting Old-age Crisis)’ 보고서에서 3기둥 시스템(three pillars system)을 제안했다[3]. World Bank 연금개혁안은 정액제 보편주의 기초연금(제1층), 확정급여 소득비례 부과방식연금(제2층)을 정액제 선택주의 사회안전망연금(제1기둥), 확정기여 적립방식연금(제2기둥)으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압축된다[4].

표 1. World Bank 노후보장 3기둥 시스템

구분	제1기둥	제2기둥	제3기둥
	법정공적연금 (mandatory publicly managed pillar)	법정민간연금 (mandatory privately managed pillar)	임의개인저축계정 (voluntary pillar)
목적	노령빈곤 완화와 재분배	저축	저축
형태	자산조사 정액기초연금/ 최저보장연금	기업연금/개인연금	기업연금/개인연금
재정	조세	정부규제하의 완전적립	완전적립

World bank의 강력한 민영화 주장에 대해 전통적 부과방식을 지지해 온 ILO/ISSA의 반론이 이어졌으며 ILO/ISSA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대안은 사회보장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면서 급여는 확정기여방식과 확정급여방식을 혼합한 4층체계(four tiers)이다. 1층은 자산조사가 있는 최저소득보장연금, 2층은 적정수준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의 40-50%)을 보장하는 강제적용의 부과방식연금, 3층은 사회보장연금을 보완하는 강제적용의 확정기여방식 민간연금, 4층은 확정기여방식의 임의가입 민간연금으로서 보험료 상한선을 철폐하여 충분한 수준의 노후보장을 기하도록 한다. 둘째 대안은 국가가 운용하는 기존의 강제적용 부과방식 사회보장연금을 명목확정기여방식(NDC)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NDC방식은 1998년 스웨덴이 연금개혁으로

도입한 새로운 방식의 연금제도로써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가입자의 개인개정에 적립시키는 강제저축제도를 말한다[4][5]. 우리나라에서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6].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은 다층체계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다음과 같은 다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0층에는 소득·자산조사를 통해 주어지는 선별적인 공공부조제도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령계층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제도, 1층에는 국민연금제도 등 공적연금, 2층에는 법정퇴직금 제도로부터 전환되는 퇴직연금제도, 3층에는 임의가입 개인연금이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변화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와 함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한 다층적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크다.

현재까지 이러한 노후준비를 다층체계의 관점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고, 노후준비요인들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요인 등이 노후준비와 관련된 중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강유진[7]과 권혁창·신혜리·김진수[8], 이신영[9]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개인특성측면에서는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었다. 둘째,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신체적 노후준비, 여성은 정서적 노후준비를 더 잘하는 등 다른 양상을 보였다. 셋째, 건강상태측면에서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준비를 더 잘하고 있었으며, 넷째, 가족특성측면에서는 부양관이 약할 경우 노후대책을 잘 준비하고 있었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었다. 경제적 요인에 대한 주민경·송선희[10]와 홍성희·곽인숙[11], 이지은[12]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안정이 성공적 노후준비에 중요한 요인임을 일관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상의 노후준비 요인과는 달리 독특한 노후준비 요인을 발견한 연구들이 일부 있었다. 홍석태·양해술[13]은 노인교육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유인순·최수일[14]은 성격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불안성,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이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근로자집단에 대한 노후준비 요인분석을 시도한 최명화·최수일[15]은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나지나·백승애·신은경·김미혜[16]는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23.4%만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으며, 교육·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준비를 더 잘하고 있었고, 베이비부머와 중고령자를 분석한 박창제[17][18]의 연구에서도 상당수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생활여건이 좋은 경우에 준비를 더 잘하고 있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노후소득보장은 공적연금과 같은 단일수단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다층체제로 준비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최근 연구인 전희정·임란[18]의 연구에서는 200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가입률 53%, 퇴직금 및 퇴직연금가입률 26.5%, 개인연금가입률 28.8%에 불과하였다. 특히, 세가지 모든 노후준비수단에 가입한 경우는 10.7%에 불과하였다[19]. 안수란[20]의 연구에서는 무연금자가 37.5%, 김성숙[21]의 연구에서는 무연금자가 36%로 나타나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조기퇴직과 각종 가족부양부담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베이비부머들의 경우 노후준비가 매우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층적 노후준비수단을 마련해야하는 시대적 환경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이다. 한국복지패널은 매년 4월~7월 사이에 조사되는 자료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의 컨소시엄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분석대상은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응답자 중 베이비붐이전세대(1945~1954년 출생) 가구주 및 가구원 1,705명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출생) 가구주 및 가구원 1,852명,

베이비붐이후세대(1964~1973년출생) 가구주 및 가구원 2,398명으로 전체 5,955명이다.

2. 주요 변수의 측정과 분석방법

베이비붐세대 노후준비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건강상태특성 변수로 구분해 SPSSWIN18.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아울러 세대 간 노후준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정과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변수는 선행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성별, 배우자유무, 종교, 교육수준을 사용하였다. 연령은 연속변수로 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각 항목별로 베이비붐이전세대 (1945~1954년출생),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출생), 베이비붐이후세대(1964~1973년 출생)등으로 세분화 하여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 정도를 전·후세대와 비교함으로써 객관적 준비정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건강상태 변수로는 만성질환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좋음, 보통, 나쁨)로 구분하였다. 셋째, 경제적 변수로는 연간 가구 총소득과 생활비를 사용하

였다. 생활비는 연간 총생활비, 보건의료비, 사교육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베이비붐이전세대는 여자가 많고 이후세대는 남자가 많으며, 베이비붐세대는 남녀 거의 유사하였다. 교육수준은 이전 세대보다는 높으나 이후 세대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전문대졸 이상이 16.5%에 그쳐서 교육수준이 낮았다. 배우자가 있는 베이비부머가 82.83%로서 전·후 세대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가정을 중시하는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건강상태측면에서 베이비붐세대는 만성질환 등 건강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연령대로 베이비붐세대의 만성질환 유·무 측정에서 유질환자는 이전세대(67.62%) 보다는 낮고 이후세대(24.77%) 보다는 높은 43.79%로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성질환이 늘어나는 일반적인 특성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나서 베이비붐세대의 건강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2.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비교

구 분		구 분	베이비붐이전세대 1945~1954출생	베이비붐세대 1955~1963출생	베이비붐이후세대 1964~1973출생	계
인구 사회학 특성	성별	남자	756(44.34)	925(49.95)	1220(50.88)	2901(48.72)
		여자	949(55.66)	927(50.05)	1178(49.12)	3054(51.28)
	교육수준	초졸이하	811(47.57)	360(19.44)	75(3.13)	1246(20.92)
		중졸이하	380(22.29)	376(20.30)	161(6.71)	917(15.40)
		고졸이하	385(22.58)	809(43.68)	1264(52.75)	2459(41.29)
		전문대졸이상	129(7.57)	307(16.58)	897(37.41)	1333(22.38)
	배우자	유	1380(80.94)	1534(82.83)	1948(81.23)	4862(81.65)
무		325(19.06)	318(17.17)	450(18.77)	1093(18.35)	
건강 상태 특성	만성질환	유	1153(67.62)	811(43.79)	594(24.77)	2558(42.96)
		무	552(32.38)	1041(56.21)	1804(75.23)	3397(57.04)
	건강상태	좋음	683(40.08)	1157(62.51)	1867(77.86)	3707(62.27)
		보통	523(30.69)	418(22.58)	357(14.89)	1298(21.80)
		나쁨	498(29.23)	185(10.09)	174(7.26)	948(15.92)
경제 특성	생활비*	총 생활비	248.37(179.46)	333.44(197.62)	327.73(168.47)	306.78(184.82)
		보건의료비	16.43(30.00)	13.12(20.95)	11.51(21.51)	13.42(24.18)
		사교육비	2.24(13.52)	15.15(31.17)	30.09(33.66)	17.47(30.70)
	연간총 가구 소득*	3444.05(3032.90)	4694.91(3699.82)	4593.31(2973.36)	4259.86(3277.24)	

표 3. 세대 간 노후준비 차이

구분		베이비붐 이전세대	베이비붐세대	베이비붐 이후세대	Chi-Square	Pr>ChiSq
공적연금	가입	535(31.38)	1096(59.18)	1522(63.47)	453.8293	〈.0001
	미가입	1170(68.62)	756(40.82)	846(36.53)		
개인연금	가입	74(4.34)	213(11.50)	341(14.22)	105.7121	〈.0001
	미가입	1631(95.66)	1639(88.50)	2057(85.78)		
퇴직연금	가입	9(0.53)	28(1.51)	63(2.63)	27.0554	〈.0001
	미가입	1696(99.47)	1824(98.49)	2335(97.37)		

베이비붐세대 경제수준에 대한 분석결과 연간 가구 총소득은 베이비붐세대가 전·후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총생활비에서는 예상대로 베이비붐세대가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자녀교육과 커진 가정경제 규모 등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사교육비는 베이비붐세대보다 이후세대인 젊은 세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상 베이비붐세대의 자녀교육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차츰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2. 베이비붐세대 노후준비 차이 분석

가. 세대 간 노후준비 차이

노후준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베이비붐세대, 이전세대, 이후세대의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가입 차이를 분석하였다. 베이비붐세대의 공적연금가입은 전체 조사대상자 1,852명중 1,096명(59.18%)으로 이전세대(31.38%)보다는 높고 이후세대(63.47%)보다는 낮은 세대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개인연금가입률은 11.50%로 이전세대(4.34%), 이후세대(14.22%)로 젊은 세대로 갈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퇴직연금의 경우 1.51%로 이전세대(0.53%), 이후세대(2.63%)로 역시 이후세대로 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노후준비수단으로 공적연금가입이 가장 많았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가입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가입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일환으로 가입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적연금가입도 60%수준으로 전국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토대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현재의 노인세대와 향

후 노인세대인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노후준비정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진입을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차이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공적연금 가입은 남성(77.56%)이 여성(29.57%)보다 높았다. 여성의 미가입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직장근로가 적은 이유가 있을 것 이지만,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수명이 길어 혼자서 살아 가야 할 기간이 긴 것을 고려하면 여성들의 공적연금가입 확대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개인연금가입률은 남성 2,901명중 362명(12.48%), 여성 3,054명중 266명(8.71%)으로 남성가입률이 높았다. 직장생활을 많이 하는 남성들의 가입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퇴직연금가입률은 전체 1.68%로 남성가입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도입이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은 가입률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수준에 따른 분석결과, 공적연금가입률은 초졸 31.30%, 중졸43.62%, 고졸56.73%, 전문대졸이상 72.63%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개인연금가입률은 초졸3.61%, 중졸3.82%, 고졸 10.86%, 전문대졸이상21.08%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퇴직연금의 가입률 역시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높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후준비의 차이 분석결과, 공적 연금은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의 가입률은 51.54%로 배우자가 없는 가구주 가입률 59.19%보다 낮았다. 개인연금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의 가입률은 11.62%로 배우자가 없는 가구주 5.76%보다 높았다. 배우자가 없

표 4. 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노후준비 차이 분석

구분	구분	가입	미가입	Chi-Square (Pr>ChiSq)	구분	구분	가입	미가입	Chi-Square (Pr>ChiSq)		
성별	공적연금	남자	2,250(77.56)	651(22.44)	1375.4296 (<.0001)	교육수준	공적연금	초졸	390(31.30)	856(68.70)	487.5457 (<.0001)
		여자	903(29.57)	2,151(70.43)				중졸	400(43.62)	517(56.38)	
	개인연금	남자	362(12.48)	2,539(87.52)	22.3980 (<.0001)		고졸	1395(56.73)	1064(43.27)		
		여자	266(8.71)	2,788(91.29)	50.6842 (<.0001)		전문대졸이상	968(72.62)	365(27.38)		
	퇴직연금	남자	84(2.90)	2,817(97.10)	32.4483 (<.0001)		개인연금	초졸	45(3.61)	1201(96.39)	264.5887 (<.0001)
		여자	16(0.52)	3,038(99.48)				중졸	35(3.82)	882(96.18)	
배우자	공적연금	유	2506(51.54)	2356(48.46)	20.9753 (<.0001)	고졸		267(10.86)	2192(89.14)	93.956 (<.0001)	
		무	647(59.19)	446(40.81)	32.4483 (<.0001)	전문대졸이상	281(21.08)	1052(78.92)			
	개인연금	유	565(11.62)	4297(88.38)	1.9458 (0.163)	퇴직연금	초졸	4(0.32)	1242(99.68)		
		무	63(5.76)	1030(94.24)			중졸	3(0.33)	914(99.67)		
	퇴직연금	유	87(1.79)	4775(98.21)	1080(98.81)		고졸	32(1.30)	2427(98.70)		
		무	13(1.19)	1080(98.81)			전문대졸이상	61(4.58)	1272(95.42)		

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개인연금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연금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1.79%, 배우자가 없는 경우 1.19%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다.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분석결과 공적연금의 경우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주 가입률이 43.94%로 만성질환이

없는 가구주 가입률 59.73%보다 낮게 나타났다.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주 개인연금가입률과 퇴직연금가입율도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에 높았다. 대체로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서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분석결과, 공적연금가입률이 건강상태 좋음(61.10%), 보통(44.68%), 나쁨(32.42%)

표 5. 건강상태에 따른 노후준비 차이 분석

구분	구분	가입	미가입	합계	Chi-Square	Pr>ChiSq	
만성질환	공적연금	유	1124(43.94)	1434(56.06)	2558(100.00)	146.0067	<.0001
		무	2029(59.73)	1368(40.27)	3397(100.00)		
	개인연금	유	202(7.90)	2356(92.10)	2558(100.00)	33.355	<.0001
		무	426(12.54)	2971(87.46)	3397(100.00)		
	퇴직연금	유	26(1.02)	2532(98.98)	2558(100.00)	11.9328	0.0006
		무	74(2.18)	3323(97.82)	3397(100.00)		
주관적 건강상태	공적연금	좋음	2265(61.10)	1442(38.90)	3707(100.00)	295.1521	<.0001
		보통	580(44.68)	718(55.32)	1298(100.00)		
		나쁨	308(32.42)	642(67.58)	950(100.00)		
	개인연금	좋음	496(13.38)	3211(86.62)	3707(100.00)	88.8258	<.0001
		보통	93(7.16)	1205(92.84)	1298(100.00)		
		나쁨	39(4.11)	911(95.89)	950(100.00)		
	퇴직연금	좋음	92(2.48)	3615(97.52)	3707(100.00)	38.3221	<.0001
		보통	5(0.39)	1293(99.61)	1298(100.00)		
		나쁨	3(0.32)	947(99.68)	950(100.00)		

표 6. 노후준비에 따른 경제수준 차이

구분	가입 여부	N	평균 (M)	표준 편차(SD)	통계량(T) (Pr > t)	구분	가입 여부	N	평균 (M)	표준 편차(SD)	통계량(T) (Pr > t)
가구 총소득	가입	3153	4804.2	3342.8	12.9300	총 생활비	가입	3153	336.8	185.9	13.5400
	미가입	2802	3723.8	3104.4	<.0001		미가입	2802	273.0	177.7	<.0001
	가입	628	6795.3	4482.5	15.2300		가입	628	449.3	241.8	16.0600
	미가입	5327	4001.2	2969.5	<.0001		미가입	5327	290.0	169.2	<.0001
	가입	100	7068.3	4621.1	6.0800		가입	100	470.8	286.6	5.8000
	미가입	5855	4248.5	3229.4	<.0001		미가입	5855	304.0	181.3	<.0001

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았다. 개인연금가입률과 퇴직연금가입률도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들이 노후준비 또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 분석

공적연금가입여부에 따른 경상소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경상소득 평균이 연간 4,804만원, 미가입자 3,724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1,247만원 더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라서는 가입자 경상소득 약 6,795만원, 미가입자 4,001만원으로 가입자가 2,794만원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퇴직연금 가입여부에 따라서는 가입자가 약 2,819만원정도 더 많았다.

공적연금가입여부에 따른 총생활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의 총생활비 지출액은 약 337만원이고 미가입자는 273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약 83만원정도 더 지출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분석결과 가입자 총생활비 지출액은 약 449만원이고 미가입자 생활비 지출액은 290만원으로 가입자가 약 159만원정도 더 지출하고 있었다. 퇴직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총생활비 지출액도 가입한 사람이 약 167만원정도 더 지출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는 경우에 소득도 많고, 총생활비 지출도 많아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베이비붐세대가 2010년 정년퇴직을 시작

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예비 노인들의 노후준비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베이비붐 세대는 50대 중반 퇴직으로 인해 소득을 통한 자산축적 기간이 짧고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소비기간은 길어질 것이다. 714만명 거대집단인 베이비붐 세대 퇴직은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분석대상인 베이비붐세대의 경제적 특성과 건강수준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적으로 이전세대에 비해서 좋은 반면, 이후세대에 비해서는 열악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우려와 달리 아직까지는 베이비붐 이전세대(3,444만원), 베이비붐세대(4,694만원), 베이비붐이후세대(4,593만원) 순이었다. 이후 세대보다 자녀교육, 생활비 자녀 결혼비용 등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그리 높지 않은 경제수준으로 인해 노후준비를 충분히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건강상태 특성으로는 베이비붐세대의 만성질환 경험 43.79%로서 베이비붐이전세대 67.62%에 비해 낮고 베이비붐이후세대 42.96%보다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건강관리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 특성을 보면 첫째, 베이비붐이전세대에 비해서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가입률이 낮아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18-20]와 동일한 결과이지만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노후준비가 더 안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공적연

금, 개인연금, 퇴직연금가입율이 높아서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의 경우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큰 만큼 노후빈곤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만성질환에 이환되지 않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가입율이 높았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의료비 지출이 염려되는 경우에 노후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보장과 노후소득보장의 연계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노후소득보장 수단에 가입한 경우에 소득수준이 높고 생활비지출도 많아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였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 노후준비도 하지 못해서 빈곤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김용희[22]와 권문일[23]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나 EU국가에 비해서 노인빈곤율은 매우 높으면서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적용율은 매우 낮아서 노인빈곤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상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상태 요인, 경제적으로 요인에 따른 분석도 과거 연구결과[7-10]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베이비붐세대도 일반적인 노후준비 요인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결과 불완전 근로와 조기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이비붐세대는 자신을 위한 노후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교육수준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경우에 더욱 노후준비를 하지 못해서 노후빈곤의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후준비부족으로 빈곤가능성이 높은 여성, 낮은 건강수준, 낮은 교육수준, 낮은 경제수준의 특성을 가진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들이 향후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충실히 가입한다하더라도 노후생활에 턱없이 부족한 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노령수당방식의 노후소득지원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1] 방하남, 신인철, *생애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재취업*, 한국노동연구원, 2010.
- [2] 박창제,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279, 2008.
- [3] World Bank, *Averting the Old Age Crisis : Policies to Protect the Old and Promote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4]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9.
- [5] A. Sunden, The Swedish NDC Pensions Reform,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Vol.69, No.4, 1998(12).
- [6] 김원섭, *주요국가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와 우리나라 공사연금제도 발전방안*, NPS국민연금연구원, 2006.
- [7] 강유진,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6권, 제4호, 2005.
- [8] 권혁찬, 신혜리, 김진수, “중고령자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와 노후준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4호, 2012.
- [9] 이신영, “도시거주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28권, 제1호, 2009.
- [10] 주민경, 송선희,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개념에 대한 암시적 타당화”,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2권, 제2호, 2012.
- [11] 홍성희, 광인숙,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제1호, 2006
- [12] 이지은,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0.
- [13] 홍석태, 양해술, “한국 중고령자의 노인교육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5호, 2008.
- [14] 유인순, 최수일,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

- 지, 제12권, 제4호, 2012.
- [15] 최명화, 최수일, “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과 노후준비와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2012.
- [16] 나지나, 백승애, 신은경, 김미혜, “결혼 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0권, 제2호, 2010.
- [17] 박창제,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3호, 2008.
- [18] 박창제, “베이비부머의 노후를 대비한 사적 재무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보장연구, 2011.
- [19] 전희정, 임란, “다층연금체계의 가입구조와 특성 분석”, 보험학회지, 제90집, 2012.
- [20] 안수란, *인근로자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가입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21] 김성숙, “50대 비은퇴자의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가입구조와 특성”, 사회과학논총, 제28권, 제1호, 2009.
- [22] 김용하, “노후소득보장 시스템 개혁의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사회정책, 제18집, 제2호, 2011.
- [23] 권문일,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14권, 2008.

저 자 소 개

이 용 재(Yong-Jae Lee)

정회원



- 2000년 2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2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6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보장, 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